

익산시, 고강도 방역 추진

추가 확진자 동선 파악·고위험시설 관리 대책 강화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명령·구상권 청구 검토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시설에 대한 관리 대책을 강화하는 등 고강도 방역체계 구축에 나섰다.

정현율 시장은 26일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지역 확진자 현황과 방역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익산지역은 지난 25일 전북 77번 확진자의 직장동료인 50대 남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현재까지 총 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8번째 확진자는 전주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50대 남성으로 거주지는 익산이다. 지난 28일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 10분까지 아내와 함께 부송동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으며 오후 4시까지 군산의 한 신발가게에 방문했다. 이어 오후 4시10분에는 다시 익산으로 이동해 밤 10시까지 당구장과 신동의 한 식당에 머물렀다.

24일에는 오전 7시30분 딸과 함께 차를 이용해 전주로 출근했으며 오후에 익산으로 이동해 4시까지 영등동의 한 핸드폰 대리점을 방문했다. 이후 오후 5시 자택으로 돌아왔으며 25일 인후통 증상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 최종 확진됐다.

익산시는 최근 일주일 사이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강도 방역체계 구축해 지역 내 감염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어려운 지역경제 현실을 감안

해 고위험시설 10개 업종에 대한 운영은 허용하며 방역 수칙 1회 위반 시 시정조치와 경고 없이 바로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고발과 구상권 청구 검토하기로 했다.

추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상황을 고려해 운영을 중단할 방침이다.

노인·장애인시설 등 각종 복지시설은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폐쇄한다. 다만 경로당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은 무더위 쉼터와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기존대로 운영하되 외부인 출입을 금지시키고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한층 엄격하게 관리한다.

또한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

를 연기 또는 취소했으며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각종 모임 금지,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 등을 권고하고 나섰다.

특히 코로나19가 더 확산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선포하게 이러한 조치는 급격한 유행확산을 차단하며,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이 목표이고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의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한다는 핵심메시지이다.

게다가 이러한 3단계 조치가 이루어지면 ▲10인이상행사 집합금지 ▲스포츠행사 중지 ▲다중시설 공공시설 운영중단 및 민간시설중 고위험시설 운영중단과 그 외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 원격수업 ▲휴업, 공공기관 필수인원의 전원 재택근무, 민간기업 필수인원의 전원 재택근무 권고 조치 등의 강력조치가 이루어져 시민들의 경제생활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정현율 익산시장은 26일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지역 확진자 현황과 방역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현율 시장 “태풍 피해 최소화” 주문

긴급대책회의... 건설현장·비닐하우스 사전점검 강화

정현율 시장이 북상 중인 제8호 태풍 ‘비비’를 대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시장은 26일 13개 협업부서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풍 북상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사전 안전 조치 사항을 점검했다.

이어 산사태위험지구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사전에 출입을 통제하고 재해취약지역과 농작물 등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회의 이후 정 시장은 모현동의 아파트 신축현장을 방문해 각종 대비 타워크레인과 가설물터리 등 위험 시설물 안전상태와 배수로 정비현황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오산면 시설하우스 농가로 이동해 비닐하우스 고정끈 설치 여부와 작업장 내 위험요소 등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폈다.

앞서 시는 태풍 북상을 대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고 예찰과 피해예방 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재해취약지역과 태양광 시설, 공사현장 등 각종 시설에 대해 긴급 사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위험지역 수시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도로 입간판 고정, 현수막 제거 등 강풍에 취약한 구조물에 대한 점검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태풍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진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익산지역은 26일 오후부터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비와 최대순간풍속 초속 40~60m의 강한 비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 ‘코로나 확진자’ 2명 연속 발생

시 “개인위생수칙 준수” 주문

확진자와 접촉한 군산시민이 코로나 19에 연속으로 확진되며 개인 위생 수칙 준수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6일 군산시에 따르면 회사 동료(전북 77번)와 접촉해 확진된 군산20번 확진자 A(40대)씨는 두통과 근육통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24일 회사 동료가 확진되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실시한 뒤 25일 오후 8시20분경 양성판정을 받았다.

지난 군산8번 확진자와 접촉해 확진된 군산11번 확진자 B(20대)씨는 무증상으로 지난 24일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실시한 뒤 25일 오후 10시 30분경 양성판정을 받았다. 특히 B

씨는 서울사랑재일교회발 추가 감염으로 밝혀졌다. A씨는 현재 군산의료원 격리병동에 입원했으며 B씨는 26일 오후 2시경 군산의료원 격리병동에 입원 예정이다. 시는 이들에 대한 자택 및 방문자 CCTV를 확인해 소독을 실시하고 접촉자에 대한 검사 실시 및 자가격리조치를 실시했다. 또 핸드폰 핸드폰 GPS·카드사용내역·DUR 및 방문자를 CCTV 확인해 추가 동선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방역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추가 확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고 개인 모임은 잠시 거리를 두고 자제하는 등 추가 확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해 달라”고 강조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새만금산단, 전기차 관련기업 투자유치 잇따라

군산시·비전에너지 협약

군산시는 26일 새만금개발청에서 전기차 관련 전장부품 제조기업인 (주)비전에너지와 새만금산단단지 입주를 위해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식원 (주)비전에너지 대표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우범기 전북도 정부부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김우상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주)비전에너지는 자동차 품질 검사 장비를 수년간 제작한 노하우를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전지자동차 및 ESS 배터리의 충전 및 보호장치인 BMS 모

듈과 자동차 LED 램프 등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을 통해 (주)비전에너지는 새만금산단단지 1만7,730㎡ 부지에 총 150억원을 투자해 65여명의 고용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군산시와 전북도, 새만금개발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재정적 지원을 적극 협조하기로 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인프라 조성과 부지 공급을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으로 군산시는 최근 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관련 기업의 투자협약이 이어지면서 지역기반 사업인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산업의 메카로 자

리매김해 나감과 동시에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들과 함께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이겨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도시로 재도약을 꿈꿀 수 있는 발판으로 삼을 전망이다.

이날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주)비전에너지의 투자결정이 우리 시민들에게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라며, “(주)비전에너지의 성장이 곧 군산과 새만금의 성장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 배산에코르 공공임대 아파트 조기 분양 지원

익산시가 배산에코르 공공임대 아파트의 조기 분양을 이끌어냈다.

특히 정현율 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분양가격을 유도해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6일 시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인 배산에코르가 감정평가법인에 의하여 106㎡(32평형, 기준층) 약 1억 7,870만원, 126㎡(38평형, 기준층) 약 2억 1,980만원의 분양가가 결정됐다.

이같은 성과 달성으로 정현율 시장, 김수홍 국회의원 등이 주민들에게 감사패를 받았으며 무부수료 입주자를 위해 봉사해온 전성철 분양추진 전략 분과 위원장 등이 공로패를 받았다.

정 시장은 최근까지 배산에코르 임대파트의 원활한 조기 분양을 위해 주민들의 입장에서 노력을 기울여준 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시는 전복개발공사의 하자처리에 입주자들이 어려움을 겪자 익산시는 민원을 적극적인 민원채리로 하차처리 진행 과정을 자문하고 보조함으로써 지역 시민을 보호해왔다.

김수홍 국회의원은 해당 감정평가 금액이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공공주택 사업자와 입차인 모두를 배려하는 공정한 가격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의회, 내달 2일 제232회 임시회 개최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9월 2일부터 제232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9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회의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위원장 김우민)를 개최하고 제232회 임시회 회기 결정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6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신영자 의원의 ‘군산시 노인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과 김영자 의원의 ‘군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동수 의원의 ‘군산시 수난구조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동완 의원의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4건도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시의회는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데다 지역사회로 감염 확산이 늘고 있어 의회 차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방지를 위해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 /군산=한경봉기자

과학영농육종연구센터 신축 착수... 11월 준공

군산농업기술센터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보급을 위한 과학영농육종연구센터 신축에 착수해 오는 11월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과학영농육종연구센터는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634-35번지에 지상 1층 규모(연면적 695㎡)로 신축하게 되며 안전성분석실, 종합검정실, 쌀품질·품질분석실 등으로 구성되어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연간 8,000여건의 과학영농분석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분야별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서는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MS) 시행에 따른 잔류농약분석을 지원해 출하 전 농산물 안전성 검사와 농약 안전사용요령 교육 추진으로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GAP)인증과 연계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유도한다. /군산=한경봉 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